



KB증권
최대 6.5% ELS 등 7종

KB증권은 오는 18일까지 KOSPI200지수와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6.5% (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able ELS 773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보장형 주기연계증권(ELS) 5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7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able ELS 770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KOSPI200지수와 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8% (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4개월 단위 상환 ELS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7일까지 홍콩 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1318회'를 총 3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4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4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4·8·12개월), 85%(16·20·24개월), 80%(28·32·36개월) 이상이면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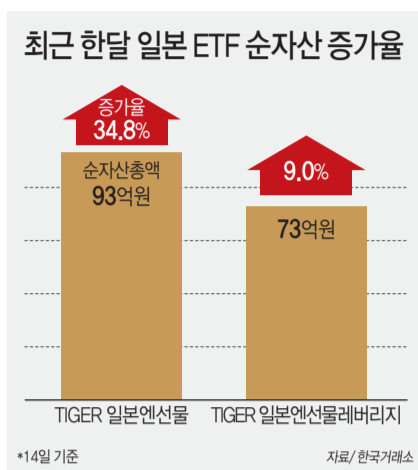


하나금융투자
5.9% ELS 등 3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투자매력을 높인 다목적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 청약기간은 1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다.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 225),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 5.9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283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미국지수(S&P500), 일본지수(NIKKEI 225), 홍콩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연 4.5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284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불확실성의 시대엔 역시 '안전자산' 금펀드, 엔화·선진국채권 ETF 뜬다

3개월간 금펀드에 283억 순유입
美·中 분쟁... '엔화 ETF'에 투자
변동성 확대에 채권ETF 수요 ↑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금이 빠져나가던 금펀드는 연초 이후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엔화 강세에 따라 엔화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인기다. 자산운용사들은 안전자산을 담은 ETF 포트폴리오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금펀드에 283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 금값은 지난해 11월 중순 저점 대비 7.4%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은 최근 3개월 동안(14일 기준) 5.5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금선물(H)' 역시 5.17% 올랐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 ETF 수익률(-4.48%)을 크게 웃돌았다.

또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높아지

면서 엔화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엔화 ETF로 자금 유입도 가파르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엔화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일본엔선물'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일본 엔선물지수를 기초지수로 일간수익률을 추종한다.

최근 한달 동안 'TIGER 일본엔선물'의 순자산은 34.8% 증가해 93억원까지 늘었다.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역시 순자산이 9.0% 늘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엔화 강세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12월 평균 대비 1월 평균 엔화 환율은 3.21%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TIGER 일본엔선물' 수익률도 최근

한달 9.0%를 기록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채권 ETF 출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해 8월 'TIGER(타이거) 미국채10년선물 ETF'를 증시에 상장했다. 10년 만기 미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상품이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인버스(H)'를 상장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 ETF로 수익률을 방어하려는 투자자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ETF 상품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다"고 귀띔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해찬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할 시점”

(더불어민주당 대표)

與, 금융투자업 간담회
“손실세 세금 등 이중과세 문제점
現 거래세 제도 폐지·개선 필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집권 여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제개편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이니즈월(Chinese Wall)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필요한 규제완화에도 속도가 더해

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단은 거래세 폐지에 대해 강조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는 현재 거래세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

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증시 침체까지 맞물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증권거래세법 개정 기대감이 커졌다.

/손임지 기자



키움 히어로즈 출범식에 참석한 이해찬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증권업계 첫 야구단 '키움 히어로즈' 출범

이현 “프로야구 발전에 큰 일익”
연간 100억 5년간 500억원 투입

“키움은 다우기술이라는 벤처 회사의 자회사로 IT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 자본시장의 근간인 주식 거래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갖고 14년째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프로야구단 히어로즈도 거대한 그룹사와 별도로 독립된 구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선수를 개발해 프로야구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증권업계 최초로 야구단과 스폰서를 맺은 '키움 히

어로즈' 출범식에서 “작은 회사에서 시작한 두 회사가 점점 커나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키움증권은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히어로즈 야구단과 스폰서를 맺고 키움 히어로즈 야구단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증권사가 야구단의 메인 스폰서를 맡는 첫 사례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히어로즈 구단과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히어로즈에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를 행사하게 됐다. 키움은 연간 100억원 씩 총 5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올해부터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리그에 참여한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SK건설, 친환경 연료전지 수주 낭보

블룸에너지 관련 총 3건 공급 체결
'에너지 서버' 전기 효율 50% 높아

SK건설이 연말연시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SK건설은 지난달 한국중부발전·KT 등과 총 3건의 블룸에너지(Bloom Energy)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사와 주기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3건의 사업을 확보했다.

먼저 SK건설은 중부발전과 함께 6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연료전지는 소음이 적고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도시미관과의 조화도 이룰 수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도심 지하에 건설되는 서울북합화력발전소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KT 국사 2곳에 각 0.9MW 규모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이후에도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주기기인 '에너지 서버(Energy Server)'는 전기 효율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주기기인 에너지서버 모습. /SK건설

이 기존 연료전지보다 50% 이상 높다. 부지 활용성도 높아 도심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기 적합하다. 현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차세대 분산 전력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수요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SK건설 이왕재 연료전지 담당임원은 “연료전지는 대형 발전부터 도심·자가소비형 발전까지 다양한 규모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전력공급원”이라며 “SK건설도 분산형 전원 발전사업이라는 장기 비전을 갖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